

# 장백산천지

제 130 호

2009 년 3 월 27 일

금요일

세계 각지에서 5 천만 용사들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성원



미국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바탄도



오스트레일리아 멜본



캐나다 토론토



아일랜드

국가안전부 첩보관 리봉지가 주미중국대사관앞에서 퇴당을 성명



지난 3 월 15 일 오후, 전임 중국국가안전부 대외 첩보관 리봉지(李凤智)는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퇴당을 성명했다. 세계퇴당



봉사중심 주식 고대위(高大伟)는 리봉지에게 중공당단퇴출증서를 교부했다.





# 신운이 갖다준 복

## 비틀어진 경추가 나왔다



한 금융업에서 주관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그의 친구와 함께 공을 치다 불행히 경추가 비틀어지는 심한 증상을 입었다. 의사는 그에게 “백일안에 모두 나아지기 힘들며, 낫지 않으면 불수로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리고 매일 병원에 가 물리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날 병원에 가서 하루 사이에 천여원의 병원치료비를 지불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친척이 그에게 한장의 신운공연비디오를 갖다주면서 그에게 “이는 아주 특별한 공연인데, 보고나면 당신의 고통을 경감해줄수 있을 것이요. 혹시 기적이라도 일어날지 누가 알겠소”라고 말하였다. 한주가 지나간후 비디오를 가져다준 친척이 다시 그를 찾아와서 보니 그의 온 얼굴이 웃음으로 넘쳤고 얼굴색도 불그레해 졌으며 비틀어졌던 목의 거동도 아주 자유로웠고 감탄을 금치못하면서 친척한테 “파룬궁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다고 해도 믿지 않았으며 지난날 나는 이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파룬궁은 정말로 보통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초상적이고 좋은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 박해 받아 불구로 된 룽설금



산동성 청도시 파룬궁학원 룽설금(陆雪琴)은 2008년 1월 26일,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료원로파출소에 갇혀 9일동안 자지 못하고 매를 맞아 온몸에 어혈이 지고 혈전이 생겼으며 허리, 다리, 발이 불구가 되었다.

2008년 12월 29일, 룽설금 가족에서 청도시북구법원에 요구서를 보내어 생명이 위급한 룽설금을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복이 없다.

## 연합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의 죄행을 폭로

지난 3월 2일부터 27일까지 연합국제 10 차인권리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파룬궁 학원들은 회의 기간에 자신이 집적 박해를 받은 사실로 각국 정부와 인권 조직에 중공의 범행을 폭로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정과 슬픔을 표시했으며 탄압의 잔혹성에 대해 더욱 심각히 인식했다.



회의에서 발언한 파룬궁학원 류홍창은 선후로 불법적으로 일곱번 감금되었다. 2001년 2월 9일, 그는 북경구류소에 갇혀 악경들에게 맞아 특골이 부러졌고 불법적으로 5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감옥 악경들에게 여러번 매를 맞아 내상을 입어 모진 고통을 겪었다. 그는 연합국 인권기구의 관원, 각국대표, 인권단체에 향하여 파룬궁학원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제지할것을 간절히 바랐다.

### 《100% 억울한 가짜 오심 안건이다》



2008년 말, 룽녕성 심양시심북신구법원에서 선후로 두차례 불법 개정하여 해상해, 왕소매, 소옥서, 광덕복등 4명 파룬궁학원에게 6~11년 판결을 내렸다.

저명한 변호사 당길전(唐吉田)은 가족의 위탁을 받고 문건을 열독하고 해상해와 왕소매를 만나보고 참답게 조사를 한후, 당사자 파룬궁학원들은 어떠한 법률과 법규를 범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즉시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인정했으며 《2008년 심북안건은 파룬궁학원을 불법적으로 판결한 모든 안건과 마찬가지로 100%로 억울한 가짜 오심 안건이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20일, 당길전 변호사는 손수 작성한 기소서를 심양시중급법원 원장 복부학에게 보냈다.

